

# 생거진천(生居鎭川), 향토의 맥을 이어주는 진천군

취재 : 곽 삼 섭 기자

하이얀 구름이 머물러 있던 산 허리를 감돌아 오르며 지나 온 길을 되돌아 보면, 진천은 참으로 살기좋은 고장이구나 하는 감회를 느끼게 된다.

무너진 밭둑에서 뒹굴며 밭

끝에 채이던 무수한 자기 조각들, 우거진 숲 사이로 고색 창연한 자태를 드러내는 술한 정려들, 멀리 장엄하게 치솟은 산봉우리 사이사이를 수놓으며 긴 세월을 흘러 내려온 비단옥수,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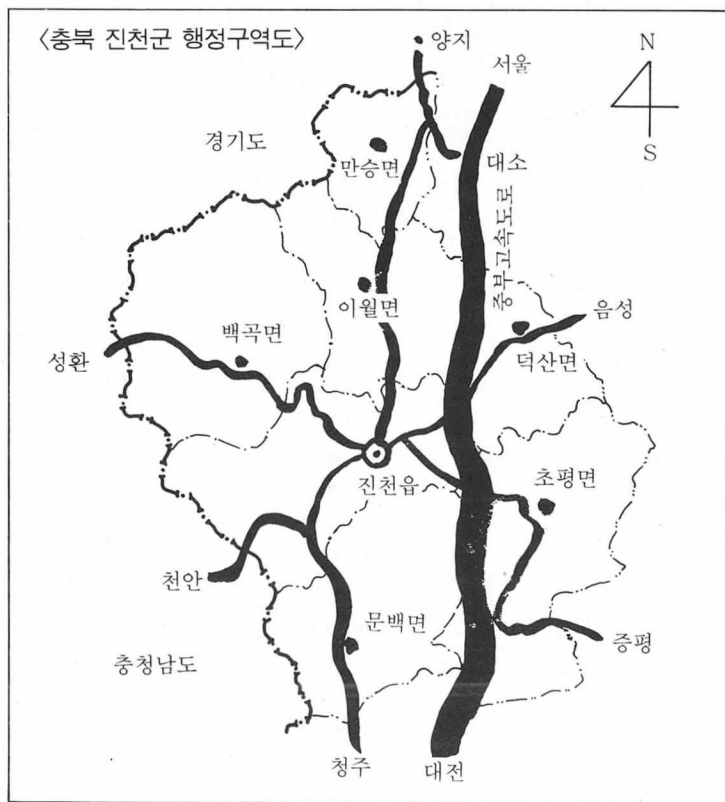
모두가 고향의 입김이요, 진천의 맥박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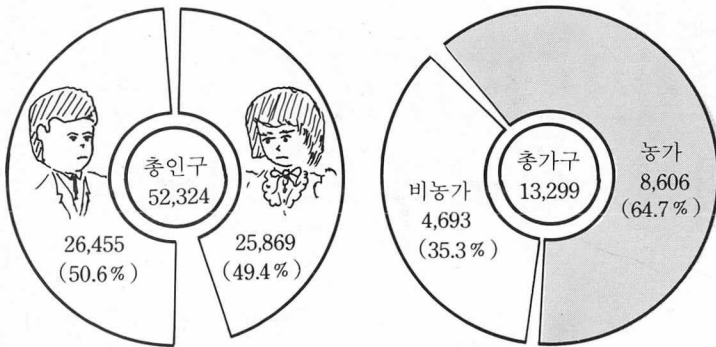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쳐 국난을 극복했던 선열들의 충의 맥을, 천지신명을 감동시키고 인간의 심금을 울렸던 효의 맥을, 생거진천(生居鎭川) 명예속에 찾는이마다 감탄사를 쏟아놓게 했던 자연경관의 맥을, 향토를 지켜온 사람들의 핏줄을 이어 내려온 그 뜨거운 애향의 맥을 ...

진천을 있게 한 역사의 맥은 선열들이 남기고간 충효의 뿌리에서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고향을 알고 애정을 가지며 고향을 지키겠다는 「향토의 맥」을 이어주는 자들이 있기에 이 고장은 더욱 빛난다.

고구려시대에 금물노군(今物奴郡), 일명 만노군이라 했거늘...

진천군은 고구려시대에 금물노군(今物奴郡), 일명 만노군,





〈그림1〉 '89년도 진천군 인구 및 가구분포도

혹은 수지(首知)·신지(新知)라 하였으며, 신라때에는 흑양군이라 고치고 그후 황양군이라 하였다.

고려초에 이르러 강주(降州)라 한후 진주(鎭州)라 개칭하여 성종때 지사를 두었다가 목종에 이르러 이를 파행했으며, 현종때에는 청주에 속하였다.

고종때 이르러서 창의현(彰義縣)이라 바꾸고, 현령을 두었다가 원종때에 의령이라 하고, 의령군사로 하였다가 이조때 와서 상산(常山)이라 고치고, 그후 진천감무(監務)로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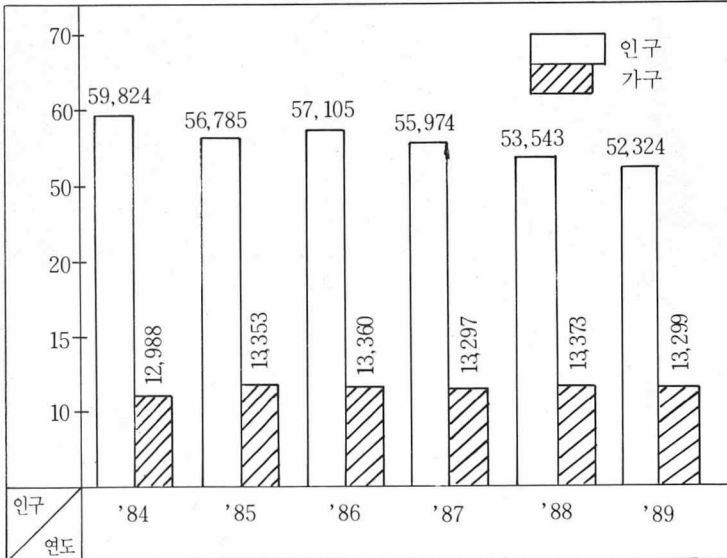
이조 태종 13년(1413) 계사년에 진천으로 개명, 현감을 두었다가 그후 연산군 11년 을축

년에 일시 경기도에 이속, 중종초에 다시 충청도에 환원되었다고 한다.

진천은 옛부터 인물다현이라 했거늘, 그 가운데 문화유적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보물 404호로 지정돼 있는 연곡리석비에 아홉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물려고 하는 모습을 조각했는데, 용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솜씨는 옛 선조들의 섬세함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 고장의 인물을 꼽는다면, 진평왕 31년에 화랑이 되고 낭비성 싸움에 공을 세워 압량주군수가 된 김유신 장군을 들 수 있다. 또 조선 선조때의 정승이며 시인인 송강 정철 선생의 위태를 모신 사당이 있는 곳이다. 송강 선생은 문장에 매우 뛰어나 관동별곡, 훈민가, 사미인곡, 성산별곡 등 많은 기사와 단가를 작품으로 남겼다.

송강 정철 선생의 훈민가 중에서 「“아바님 날 낳으시고 어마님 날 기라시니 두분 곳 아니시면 이 몸이 사라실가. 하날 가탄 가업산 은덕은 어대다혀 갑사오리” “아버이 사라신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 디나간 후면 애 닳다 엇디하리 평생에 곳터 못할 일이 잇뿐인가 하노라”」는 모두 부모에게 효성을 다 하라고 훈계한 시조로 알려져 내려오고 있다.



〈그림2〉 연도별 진천군 인구 및 가구변동 현황

〈표1〉 연도별 진천군 축종별 사육호수 및 사육두수 현황

(단위 : 호수, 두수)

연 별	돼 지						한 우		젖 소		
	사 육 규 모 별 호 수						사육 두수	사육 호수	사육 두수	사육 호수	사육 두수
	계	20마리이하	20~39	40~49	50~99	100마리이상					
'84	931	867	35	5	16	8	7,903	5,375	9,438	320	1,615
'85	554	494	22	2	11	25	11,969	5,372	10,393	335	2,016
'86	548	483	16	3	19	27	13,828	4,970	9,096	3466	2,448
'87	494	423	26	5	18	22	16,358	3,967	6,408	302	2,448
'88	471	382	26	2	12	49	21,697	3,180	5,315	269	2,512
'89	355	252	23	5	25	50	25,373	-	-	-	-

**진천군은 현재 1읍6개면에 인구는 5만2천3백24명**

진천군의 지역분할은 그동안 겪은 만고의 생리라고 볼 수 있다. 1914년 4월 6일 부령 제111호로 부군 폐합시 경기도 죽산군의 기척리와 동주리가 본군 만승면 광혜원리와 실원리에 편입되었고, 면의 개칭 및 지역변경이 14개면을 진천·덕산·초평·문백·백곡·이월·만승 등 7개면으로 통합하고, 1945년 조선총독부령 제9호에 의하여 청원군 북이면 용기리·용산리·은암리·진암리 등 4개리가 본군 초평면에 편입되었다고 한다.

진천군은 그후 1973년 진천면이 진천읍으로 승격되어 1읍 6개면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또 1983년 군조례에 의해 덕산면 상신리·산척리·이월면 송두리·가산리가 진천읍으로, 덕산면 중석리가 초평면으로, 만승면

내촌리·사당리가 이월면으로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충청북도 중부에 위치한 진천군은 동으로는 괴산군, 서로는 충청남도 천원군, 북으로는 경기도 안성군에 접하고 있다. 또 서남부는 차령산맥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에 이르러 산악이 많고 동북부는 금강 상류인 미호천이 만승면과 백곡면에서 시작, 남쪽의 광활한 평야를 흐르고 있어 비옥한 곡창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의 교통요지임을 상기한 듯 진천군민의 문화적 수준은 도시민에 못지않다고 주위사람들이 말한다. 일일 생활권역으로 2시간반이면 서울에 상류할 수 있고, 때문에 사람들이 농촌을 이적했다가 한번 찾아 볼 수 있는 곳으로 지리적 여건이 아주 좋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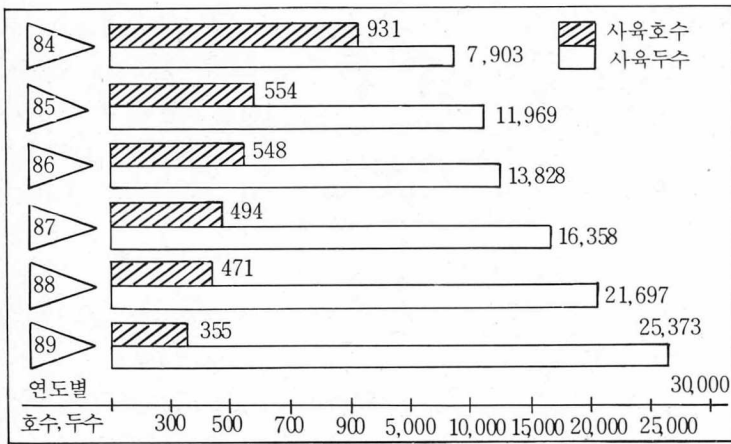
진천군은 모든 면에서 타 군에 비하면 작은 편에 속한다. 그

렇다고 아주 외소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 한 예로 가구 및 인구 분포현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89년도 진천군은 1만3천2백99가구에 인구는 5만2천3백24명으로서 가구당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남자는 2만6천4백55명(50.6%), 여자는 2만5천8백69명(49.4%)이다. 이같이 가구는 '85년도의 1만3천3백53가구보다 54가구, '88년의 1만3천3백73가구보다 79가구가 각각 줄어든 수치이다. 또 인구는 '85년도의 5만6천7백85명보다 4천4백61명, '88년의 5만3천5백43명보다 1천2백19명이나 줄어 해가 거듭될 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는 8천6백6가구, 총가구대비 64.7%로 반이상이 주곡농업 위주의 생활형태였다.

충청북도의 어느지역 못지않게 진천군은 양돈업의 성장기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에 비해 양돈농가의 수가 적지는 않지만, 지역적으로 양돈농가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장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천군의 돼지사육호수 및 사육두수를 보면 양돈업의 외적인 규모를 잘 알 수 있다. 타 군에 비해 규모면에서 적은 편에 속하지만, 타 축종에 비해 성장한



〈그림3〉 진천군 돼지사육호수 및 사육두수 변동현황

'89년 현재 3백55가구에 돼지사육두수는 2만5천3백73두

것은 사실이다. '89년 현재 사육 농가는 3백55가구에 사육두수는 2만5천3백73두로 집계되어 있다. 이 수치는 '85년의 5백54호에 비해 1백99호, '88년의 4백71호에 비해 1백16호가 각각 줄어들었다. 반면, 사육두수로는 '85년의 1만1천9백69두보다 1만3천4백4두, '88년의 2만1천6백69두보다 3천6백76두가 늘어난 통계수치이다. 이러한 사육호수의 감소에 따라 사육두수의 증가현상은 눈에 보이게 전업화 추세가 가시화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군청관계자에 따르면, 「진천군은 전업화 추세에 따라 소규모 양돈농가들이 줄어든 반면, 가족노동중심으로 전업농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지역의 양돈업 구조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 종돈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 양돈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유전자원(주)가 종돈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몇몇 소규모 양돈농가들을 제외하고는 종돈개량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또하나 특징적인 것은 작년 한 해동안 전국에서 양돈분뇨처리문제로 일부 양돈농가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진천군에서는 아직 그런 예는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분뇨를 농토에 잘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농가에서 사육규모에 따라 간이정화조를 설치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입지적 여건을 최대한 활

용하고 있는 것도 양돈인들의 일치단결된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이 양돈업의 입지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양돈협회 진천지부(지부장: 박성옥) 회원들의 활동영역에서 잘 알 수 있다. 비록 회원은 30여명에 불과하지만, 지부장이자 회원들이 생산자 조직의 일원으로서 뜻을 함께 모아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책의 편중현상으로 도시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농민들은 소외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쟁점화 되고 있는 수입 개방압력으로 농민들이 마땅한 작목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쯤 어느 농가에는 체념상태에 있는 농민도 더러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농민들은 일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보다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이중삼중의 고문이 아닐 수 없다.

진천군은 이와같은 구조적인 물결에 편승하여 피해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의 경제적인 일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농민들이 농촌에 정착해 살 수 있는 근본대책을 하루 빨리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